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이주여성의 다양성과 정책 재구성 방향

과제책임자 김이선 연구위원 (Tel: 02-3156-7158 / E-mail: yskim@kwidmail.re.kr)

여성 유학생, 대학 내·외부에서 차별, 폭력 피해에 직면하지만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초록

- 한국사회에서는 그간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결혼이주여성 이외에 서로 다른 성격과 제도적 위상을 지닌 이주여성 집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유학생의 증가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이나 저숙련 여성이주노동자가 이주의 여성화 과정에서 부상하는 주요 집단으로 인정받으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어 온 것과 비교해, 여성 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공백 상태에 가까움.
- 연구결과, 여성 유학생들은 학교,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 광범위한 사회적 장에서 차별, 폭력피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의제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성인지적 유학생 정책 추진', '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① 여성 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대학 내 인프라 강화, ② 대학 내 인종·종족 차별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③ 아르바이트 시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④ 여성 유학생 등 주요 이주여성 집단의 인권 실태에 대한 부처간 공동 조사 실시, ⑤ 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여성 집단의 폭력피해 예방, 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처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조치를 제안함.

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 ① 여성 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대학 내 인프라 강화
- ② 대학 내 인종·종족 차별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 ③ 아르바이트 시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 ④ 여성 유학생 등 주요 이주여성 집단의 인권 실태에 대한 부처간 공동 조사 실시
- ⑤ 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여성 집단의 폭력피해 예방
- 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처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1. 배경 및 문제점

- 이주의 여성화가 전개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그간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결혼이주여성 이외에 여성 유학생, 농업부문 여성이주노동자, ‘동포’ 여성 등 서로 다른 성격과 제도적 위상을 지닌 이주여성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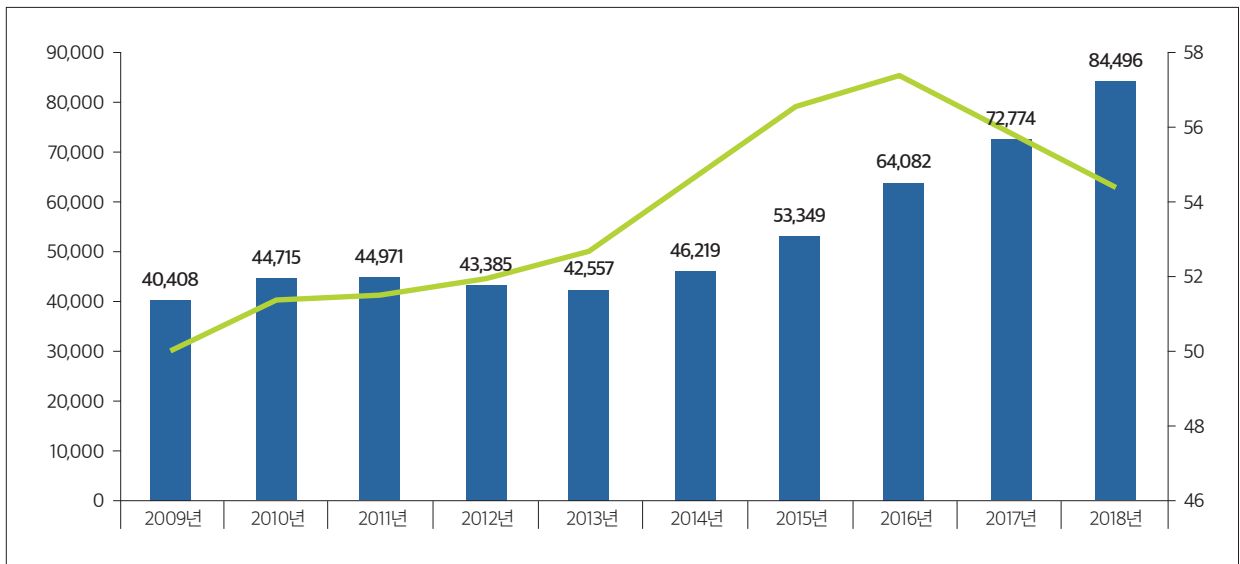
[그림 1] 여성 수와 비중에 따른 체류자격 유형 분류



-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 유학생의 증가세는 두드러짐

[그림 2] 여성 유학생* 수와 비율: 2009-2018

(단위: 명, %)



*유학생: D-2,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 자격 소지자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12월말),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자료

- 결혼이주여성이나 저숙련 여성이주노동자가 이주의 여성화 과정에서 부상하는 주요 집단으로 인정받으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어 온 것과 비교해, 여성 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공백 상태에 가까움.

2. 조사 및 분석결과

여성 유학생이 남성 유학생 보다 정부 장학금 적게 받고 유학 생활비 마련 부담 커

- 2017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 유학생 대상 부가조사(N=98,602, 가중치 부여) 원자료 분석 결과, 남성 유학생은 한국 또는 본국 정부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여성 유학생은 부모님 지원을 받거나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유학생 성별 생활비 마련 방법 (중복응답*)

(단위: %)

	한국 정부 기관 장학금	본국 정부 기관 장학금	학교 장학금	내가 모아 놓은 돈	부모님지원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대출	기타
여성	11.5	5.7	24.7	39.0	81.9	21.0	2.3	3.3
남성	17.8	7.8	23.6	36.0	78.5	18.3	4.4	2.3

*1+2+3순위

자료: 2017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유학생 부가조사 원자료 재분석

- 유학생 성별 지원 요구를 비교하면 여성 유학생은 아르바이트/취업 지원, 수업료 감면, 기숙사 제공 등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많은 데 비해, 남성 유학생은 한국어 어학 지원, 유학생 동아리 지원 등 언어나 사회활동 관련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

<표 2> 유학생 성별 지원 요구

(단위: %)

	기숙사 제공	수업료 감면	유학생 동아리 지원	출입국 업무설명회 수속대행	아르바이트/취업지원	한국어 어학지원	받고싶은 지원없음	기타
여성	12.3	32.5	6.5	4.6	18.1	17.4	8.3	0.2
남성	6.5	30.3	9.2	5.2	17.3	25.3	6.1	0.0
전체	9.7	31.6	7.7	4.9	17.8	20.9	7.3	0.1

자료: 2017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유학생 부가조사 원자료 재분석

- 이처럼 여성 유학생이 생활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은 만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더 큼. 하지만, 유학생 신분 상 제한된 범위와 시간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을 해도 남성 유학생 보다 임금은 낮은 수준임.

<표 3> 유학생 성별 취업 실태(요약)

(단위: %)

		여성	남성
취업		17.1	15.1
노동 환경	4명 이하 사업장	40.7	33.8
	임금200만원이하	96.4	92.8
	근로기간계약안함	67.8	68.6
	산재보험미가입	94.0	90.3

자료: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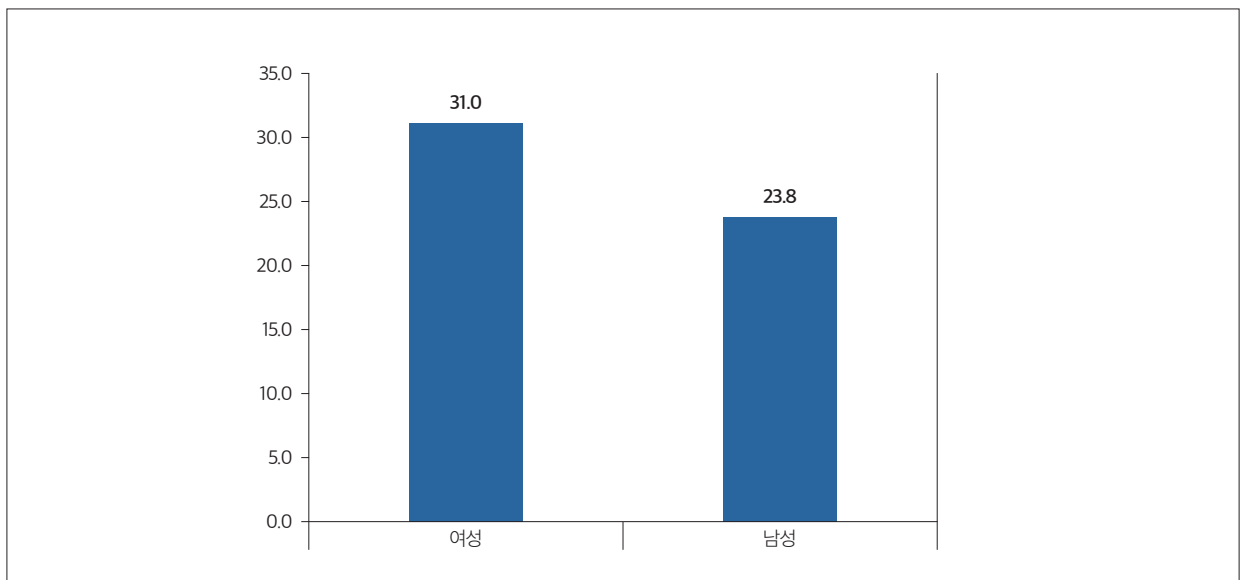


여성 유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 심각

- ▶ 한국 생활에 있어 유학생이 직면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차별 문제로,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 유학생이 남성보다 차별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유학생 성별 '지난 1년간 차별대우 경험'

(단위: %)



자료: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 ▶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재외동포 등 여타의 자격을 소지한 여성들보다 여성 유학생의 차별 경험이 더 많음. 또한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재외동포 등 여타의 이주자 집단 가운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받은 경험이 다소 많은 것과는 대조적임. 이러한 점에서 여성 유학생에게 있어서는 차별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임.
- ▶ 차별 받은 공간을 살펴보면, 유학생 중 40.1%가 학교/대학에서 차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학교 내에서 외국인 차별 문제가 만연해있는 가운데 여성 유학생이 남성 유학생 보다 학교 내에서 차별 받은 적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밖에 상점이나 음식점, 은행에서 차별 받은 경험도 여성 유학생이 더 많음. 이에 비해, 거리, 공공기관,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업체, 직장이나 일터에서의 차별 경험은 남성 유학생이 더 많음.

<표 4> 유학생 성별 차별 받은 공간*

(단위: %)

	거리	상점, 음식점, 은행	공공기관	집주인· 부동산 중개	직장·일터	학교·대학
여성	29.8	44.5	18.9	17.6	29.7	45.7
남성	39.0	33.2	21.0	25.3	36.1	32.0
전체	33.6	39.8	19.8	20.9	32.4	40.1

*약간 차별 받음 + 심한 차별 받음

자료: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사례를 통해 본 여성 유학생의 현실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유학생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촘촘하지 않은 만큼, 여성 유학생들은 비교적 개방적인 환경 하에서 일상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 유학생은 보다 광범위한 공간에서 한국인들과 접촉하면서 각종 차별, 폭력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일견 한국 학생들과 같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같은 랩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현실은 벽으로 둘러 쌓여있음.
- 교수, 학생, 선배로부터 ‘개도국 출신’,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국가·문화 출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유학생들은 차별과 폭력 피해를 입기도 함.
- 농업부문 여성이주노동자와 달리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만, 학교 밖 공간 역시 차별과 폭력 피해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음.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주,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여성 유학생의 차별, 폭력 피해에 대한 정책은 공백상태

▶ 여성유학생들은 학교 내외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각종 차별,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 내에서 빈발하는 ‘외국인’, ‘유학생’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책도, 대학 내 처리 기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인권센터 등을 통해 일반 학생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나갈 수 있으나, 당사자들은 국내의 관련 제도나 대학 내 기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해당 기구나 절차를 알고 있더라도 주류사회 중심적인 구조 하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가 적절히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제한되어 있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인 자신만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큼. 한국생활을 오래 하면서 크고 작은 차별 경험이 쌓일수록 이러한 생각도 굳어지는 경향이 있음.
- 그나마 학교 내 기구가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은 학교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와 같은 학교 밖 사안에 대해서는 별 도리가 없음. 더욱이 아르바이트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라기 보다는 ‘범법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임.

* 현 제도 상 유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취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유학생 대상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절차를 거쳐 일한 경우는 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제언

- ① 여성 유학생들은 학교,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 광범위한 사회적 장에서 차별, 폭력피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책의제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② 이에 ‘성인지적 유학생 정책 추진’, ‘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실행할 것을 제안함
 - ▶ 여성 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대학 내 인프라 강화
 - 유학생 대상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 조치 실효성 확보
 -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 상담 기구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되도록 지침 시행
 - ‘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모델 프로그램, 다국어 동영상 자료 개발, 배포
 - 유학생용 성희롱·성폭력 대응지침(다국어판) 제작, 배포
 - 대학 내 관련 기구의 여성 유학생 인권 보호 기능 강화
 - 대학 내 인권 관련 기구의 여성 유학생 대상 정보제공, 상담 프로그램 강화, 다언어 상담체계 구축
 - 국립국제교육원(외국인유학생 상담센터)이 대학 내 관련 기구 담당자를 위한 여성 유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워크숍 개최
 - ▶ 대학 내 인종·종족 차별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 인종·종족 차별, 복합차별 문제 예방 교육 실시
 - 멘토, 버디 등에 대한 차별 감수성 교육 실시
 - 대학 구성원용 다문화수용성, 집단간 관계 증진 모델 프로그램 개발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핵심여건지표에 ‘대학 구성원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활성화 수준’ 지표 신설
 - 대학 구성원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실시 횟수 (중장기, 대학 구성원의 다문화수용성 교육 참여율)
 - 차별 발생 시 처리 담당 기구 지정, 공식 처리 절차 마련
 - ▶ 아르바이트 시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 아르바이트 시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처리체계 확립
 - 성희롱, 성폭력 피해 유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신고의무 유예
 - 신고 의무 위반자 처리기준에서 예외 인정
 - ▶ 여성 유학생 등 주요 이주여성 집단의 인권 실태에 대한 부처간 공동 조사 실시
 - 이주여성 인권 실태 조사 실시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중 이주여성 부가조사로 실시
 - 직장·학교 등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실태, 대응의 장애요인, 국내 제도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 관련 교육 참여 경험 등

- ▶ 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여성 집단의 폭력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처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 기관의 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여성 집단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핵심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여성 유학생, 여성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이주여성 집단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이주여성 관련 기관과 연계’ 명시
 - 상담사, 통역 등 핵심 인력의 다양한 이주여성 집단의 성격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여성 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사업 개발, 추진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대학, 유학생 단체 등과 협력해 유학생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사업 실시
 - 대학 내 관련 기구(유학생 관리 기구, 성평등·인권 기구)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자원 연계

주관부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유학생)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권익보호과(이주여성)